

역대급 매출 찍은 K원전 ... 정책 역주행 대비상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2025. 1. 10. 17:42 수정 2025. 1. 10. 20:12

2023년 매출 32조원 훈풍불구
정부, 野압박에 신규원전 축소
협회 신년인사회서 우려 표명
민주당 일각 "친원전에 노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뒷줄 왼쪽 넷째)이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부활하던 원전산업이 야당의 반대로 신규 건설 계획이 축소되면서 다시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원전업계에 찬바람이 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수주 등으로 원전업계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원전산업 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21조6000억원, 2022년 25조4000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원전 관련 기업의 투자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438억원에 불과했던 투자액은 2023년 4880억원으

로 큰 폭 증가했다. 협회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사업 수주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야당 요구에 따라 신규 원전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에 야당 내 일각에서도 친원전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제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당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친원전적인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올해 원전 지원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올해에도 원전산업 분야에 대한 일감·금융 등 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및 1000억원 규모 원전 펀드 조성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